

##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요구도 조사

-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송 현 복\*(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석사)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90년대 이후 가족치료에서 부상하고 있는 심리교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가족들을 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교육의 이론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스트레스와 대처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형식, 내용 등의 기초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환자의 안녕을 꾀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병원과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가족 101명의 자료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가족 내 정신질환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둘째, 정신질환자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문제 중심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셋째, 정신질환자 가족은 절반 정도가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 넷째,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환자가 병을 앓은 지 10년 이상 이 된 경우, 환자가 퇴원한 지 6개월-1년된 경우, 병명이 정신분열증인 경우, 환자의 나이가 21세-30세 인 경우, 환자가 장남장녀인 경우 가장 스트레스가 높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출생순위가 막내인 경우, 집에서 환자만을 돌보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 환자가 퇴원한지 6개월 인 경우에, 가족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정서중심의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다섯째,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은 '여러 가족이 함께 하는 집단',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든지 상관없다'가 선호된다. 오후 시간에 주중(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강의와 토론 방식을 함께 하여 가족과 환자의 공동참여를 하여 '환자의 장래 적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가장 교육 받고 싶어한다.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가진 가족의 스트레스 경감과 환자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차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재활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가장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